

귀여리 303

Gyieori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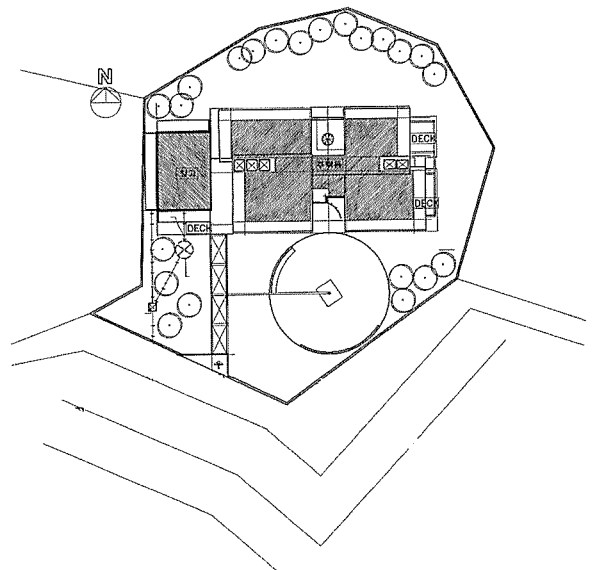
김희곤/ 흥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Gon

빛과 녹색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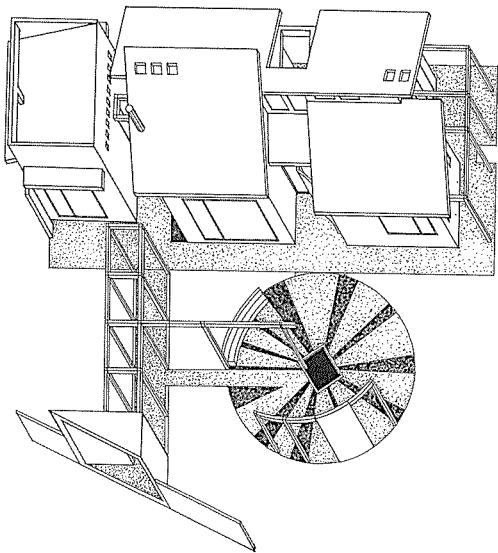
현대인에게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정주자를 위한 주택인가? 노마드를 위한 주택인가? 이 주택은 노마드와 정주자의 중간에 있으며 사회의 정보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마음이 따뜻한 중년부부를 위한 주말주택이 아니라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다. 처음부터 관념적인 형태조작 보다는 어린시절의 꿈을 다시 재편집하는 그 가슴벅찬 순간에서부터 어딘가 삶의 또다른 향기와 인생의 근원이 다시 만져지는 확실한 공간을 현대의 도시인에게 꿈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과거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밑거름 속에서 과거의 맛이 배어서 미래에 대한 강한욕구와 삶의 건강한 추진력이 생기길 원했다. 형태의 현대적, 기하학적 조작에 대한 의미보다는 태양과 녹색에 대한 소박한 욕구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주택의 주된 관심사는 서울의 생활무대, 즉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노년을 보내는 주거가 아니라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사이 공간과 처마의 높낮이 조절에 의한 수평공간의 다층화, 그 틈새로 투과되는 빛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유도했다.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와 외부의 돌담길, 마당의 형태적 현대화로 일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퍼포먼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삶이 더욱 풍족하고 재미있게 연출되길 기대했다. 낮의 빛과 녹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밤의 인공적인 빛에 대해서 고민했다. 도시의 자기과시의 빛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박하지만 촉촉하는 빛에 의해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길 기대한다. 건물이 작은 자연이고 또 큰 자연의 일부로 연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만 삶의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싶은 주택이다. 시종일관 건축가의 일관된 의지를 믿어준 건축주에게 감사드린다. 제한된 여건안에서 최선의 과정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좋은 협력자들이 생각한다. 지어지는 과정에 새겨지는 시간의 흔적은 담과 인내를 담보로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 303번지		
대지면적	744.00㎡		
건축면적	주택 - 99.06㎡, 창고 - 29.70㎡		
건폐율	17.30%	규모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담당	원윤정, 박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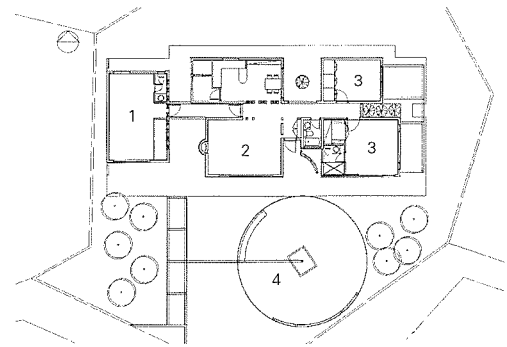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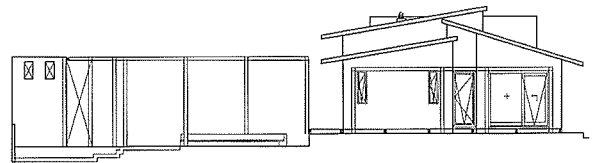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 1. 창고
- 2. 거실
- 3. 방
- 4. 마당



1층 평면도



동측면도

